

일본문학과 재일조선인 범죄학 연구

—미시마 유키오 『문화방위론』을 중심으로—

임 상 민*

(e-mail : y3k76@hanmail.net)

<목 차>

1. 들어가며
2. ‘수단으로서의 민족주의’와 타자 표상
3. 이진우사건과 재일조선인의 자기 표상
4. 외교문서와 공모하는 한일 미디어
5. 나오며

キーワード：三島由紀夫(Mishima, Yukio), 金石範(Kim, Seok-beom), 李珍宇事件(Incident by Lee, Jin-woo), 金嬉老事件(Incident by Kim, Hee-Ro), 第三の道(The Third Way), 外交文書(A diplomatic document)

1. 들어가며

본고에서는 전후 일본에서 대표적으로 회자되고 있고 재일조선인에 의한 범죄, 즉 1958년의 이진우사건(李珍宇事件)과 1968년의 김희로사건(金嬉老事件)을 중심으로, 재일조선인 작가의 자기 표상과 일본인 작가의 타자 표상에 대해서 고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먼저, 이진우사건의 경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동 사건은 1958년 9월 1일에 고마츠가와고등학교(小松川高校)의 야간에 재학 중이던 재일조선인 이진우가 같은 학교 주간에 다니는 여학생을 강간 살해한 죄로 체포된다. 이후, 본인의 자백으로 같은 해 4월 20일에도 식당 여종업원을 강간 살해한 것이 밝혀지면서 사형이 확정되고, 전후 20명 째의 미성년자 사형수가 된 사건이다. 이진우 본인은 동 사건의 범행에 대해서 마치 ‘꿈’과 같았다고 진술하면서, ‘동기 없는 살인’ 등으로 불리기도 한다.

* 동의대학교 일본어학과 조교수

이진우의 사형이 집행된 이후, 전후 재일조선인의 정체성과 일본인의 타자 인식 측면에서 다양한 소설 및 영화 등이 제작되는데, 주의할 점은 재일조선인 작가에 의한 작품은 1981년에 발표된 김석범의 『사제없는 제사(祭司なき祭り)』가 유일하다는 점이다.¹⁾ 하지만, 김석범의 동 소설에 대한 일본 문단의 평가는 그다지 높지 않다. 예를 들면, 이리에 다카노리(入江隆則)는 동 사건에 대한 ‘즉물성’이 너무 강해서 작중의 “청년과 독자와의 거리가 그다지 줄어들지 않는다”²⁾고 지적하고 있고, 다테이시 하쿠(立石伯) 역시 “너무 사건 자체에 구속되어 있어서 『까마귀의 죽음(鴉の死)』과 같이 충격적이지 않다”³⁾라고 말하고 있다. 특히, 평소 김석범 문학에 호의적인 오노 데이지로(小野悌次郎)조차도 “실제 사건의 잔영이 너무나도 크며 구성 역시도 실제 사건을 넘기에는 너무 치밀하지 못하다”⁴⁾고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다음으로, 김희로사건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1968년 2월 20일에 재일조선인 김희로가 어음 관련 빚 독촉 문제로 시즈오카현(静岡県) 시미즈시(清水市)의 나이트클럽에서 조직폭력배 2명을 엽총으로 사살하고, 이후에 스마타쿄(寸又峽) 온천 마을의 여관에서 경영자와 숙박자를 포함한 13명을 인질로 잡고 88시간 동안 경찰과 대치하게 된다. 특히, 당시 김희로는 신문 기자들과 약 20차례의 기자회견을 반복적으로 전개하면서, 사살한 조직폭력배의 악행을 공표할 것과 재일조선인에게 멸시 발언을 한 형사에게 직접 텔레비전을 통해서 사죄할 것을 요구하는 등, 인질극을 벌이는 상황 속에서도 생중계되는 동시대의 텔레비전을 교묘하게 이용했다는 점에서 극장형 범죄라고도 불린 사건이다.

또한, 당시 사건 현장에는 작가 및 대학교수, 그리고 평론가,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이른바 <문화인> 그룹이 동 사건을 단순 형사사건이 아닌 일본인의 재일조선인에 대한 민족차별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건으로 인식하고, 성명문 발표 및 설득을 위해 직접 사건 현장까지 찾아가기도 해서 이슈화되기도 했다.

1) 이진우사건을 다룬 일본의 소설, 영화, 드라마는 다음과 같다. 深沢七郎「絢爛の椅子」(「婦人口論」1959年11月号)、木下順二『口笛が冬の空に』(「テレビドラマ」1961年5月)、白坂依志夫「他人の血」(「シナリオ」1962年4月)、三好徹『海の沈黙』(三一書房、1962年5月)、大江健三郎「叫び声」(「群像」1962年11月)、朴寿南『罪と死と愛と』(三一書房、1963年5月)、映画「絞死刑」(大島渚、1968年2月3日公開)、深尾道典「いつでもないいつかどこでもないどこか」(『曠野の歌—深尾道典作品集』1970年10月、大光社)、朴寿南『李珍宇全書簡集』(1979年2月、新人物往来社)、韓国テレビドラマ『なぜ』(KBS、1980年12月7日放映)

2) 入江隆則(1981.2)「文芸時評」『すばる』, p.327.

3) 立石伯(1981.9)「事実と虚構」『群像』, p.287.

4) 小野悌次郎(1998)『存在の原基 金石範文学』新幹社, p.99.

본고에서는 먼저 전후 일본문학에서 최고의 소설가로 평가받고 있는 미시마 유키오(三島由紀夫)가 육상 자위대 본부에서 할복자살하기 2년 전인 1968년에 집필한 『문화방위론(文化防衛論)』을 중심으로, 일본인 작가에 의한 재일조선인의 타자 표상에 대해서 살펴본다. 또한, 일본 문단에서 긍정적으로 평가 받지 못한 김석범의 『사제없는 제사』를 중심으로, 재일조선인 범죄 사건에 대한 재일조선인 작가의 자기 표상을 고찰한다. 특히, 미시마 유키오가 말하는 ‘수단으로서의 민족주의’에 주목하면서 김석범의 작품읽기를 다시 시도하고, 재일조선인 범죄를 둘러싼 한일 미디어의 보도 방식 및 한국정부의 대처 방법에 대해서도 중층적으로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수단으로서의 민족주의’와 타자 표상

먼저, 전후 일본을 대표하는 작가 미시마 유키오는 김희로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자. 미시마 유키오의 김희로 사건에 대한 인식은 『문화방위론』에 수록되어 있는데, 동시대뿐만 아니라 현재까지도 동 평론에 대한 평가는 그다지 긍정적이지 못하다. 예를 들면, 동시대의 대표적인 논평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문화방위론』에 수록된 여러 에세이는 모두 미시마 유키오의 문체의 좋지 않은 부분을 보여 주고 있다. (중략) 그리고 본인이 선택해서 스스로가 걸어온 길이라고는 하지만, 앞서 논한 『문화방위론』 따위의 글이 만약 진정으로 미시마의 행동 원리였다고 한다면, 이 얼마나 지금의 일본에서 진정으로 사람이 사람으로서 자신을 보여 줄 수 있는 원리를 확립하는 것이 어렵단 말인가! 너무나도 안타까운 생각이 들기만 한다.⁵⁾

여기에서 미시마 유키오의 『문화방위론』의 골자를 자세하게 소개할 여유는 없다. 그는 정치 개념으로서의 천황을 부정하고 문화 개념으로서의 천황제를 죽음과 에로티시즘의 합일로서의 요구에서 긍정하려고 하지만, 이것은 결코 일본 문화 전체를 객관적으로 인식하고 또한 그것으로부터 천황제를 일본문화

5) 村上 一郎(1972.12) 「『文化防衛論』をめぐって」 『国文学 解釈と鑑賞』, pp.99-102.

의 정화로서 추출해 낸 것은 아니다. 본래 자의적이고 잘못된 요구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파헤치면 허점투성이의 논리인 것이다.⁶⁾

전자는 미시마 유키오의 문체와 논리의 비약성을 이유로 그의 행동 원리의 불명확성을 지적하고 있고, 후자는 ‘정치 개념으로서의 천황제’를 부정하고 ‘문화 개념으로서의 천황제’에 대한 인식의 전환을 요구하는 미시마 유키오의 인식은 문화 그 자체에 대한 인식의 부족에서 온 결과라고 비판하고 있다.

「검」의 원리에 의한 「힘」의 창조(이것 역시 「문화」이다)가 민족적인 「원천」으로의 「연속성」을 확인시킨다. 따라서, 「창조하는 것이 지키는 것이다」가 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들은 「문화」 속에 「검」을 삼입하는 것을 반대는 하지 않았지만, 「문화를 지킨다」는 것 자체에는 의문을 제시해 두었다. 문화에 있어서는 적을 상정하지 않고, 문화가 「힘」에 의한 「방위」가 요청되는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지적했다. 미시마의 머릿속에는 죽음에 의해서 문화의 가치를 절대화시키고, 죽음이라고 하는 「자기 포기」에 의해서 그것을 지킨다고 하는 궁극의 가설도 존재하는 듯하다. 그러나 그것을 공상하는 것은 가능해도 문화의 밖에 적이 없는 이상, 「지키」기 위한 죽음은 퍼포먼스에 지나지 않는다.⁷⁾

위의 글에서 사토 히데아키(佐藤秀明) 역시 지적하고 있듯이, 미시마 유키오는 문화의 형성 프로세스를 유동적인 것이 아닌 고정적인 것으로 보고 있고, ‘죽음’을 통해서 문화적 가치의 절대화를 피할 수 있다고 하는 그의 ‘궁극의 가설’을 ‘공상’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이상과 같이, 동시대의 비평가 및 현재의 연구자까지도 미시마 유키오가 말하고 있는 ‘문화’‘천황제’‘지키다(방위)’ 등의 키워드를 중심으로 논리의 비약성을 지적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논리의 비약성이 부각된 탓에 미시마 유키오가 말하는 전후 일본의 민족주의 4단계 및 내셔널 아이덴티티의 유동적인 형성 프로세스에 대한 인식은 지금까지 고찰 대상에서 누락되어 온 것도 사실이다.

미시마 유키오는 전후 일본의 민족주의를 4단계로 구분해서 인식하고 있는

6) 真継伸彦(1970.12.13) 「三島ロマンチズムの自己崩壊—虚構と錯誤の文化防衛論—」 『朝日ジャーナル』, p.9.

7) 佐藤秀明(1992.9) 「『文化防衛論』—「守る」ことをめぐって」 『国文学 解釈と鑑賞』, p.141.

데, 예를 들면 제1단계는 GHQ 점령기부터 1960년 안보투쟁까지의 시기이며 (자립국가로서 국제적 승인을 얻지 못한 시기), 제2단계는 국가권력에 의한 민족주의의 수탈이 정부 주도로 이루어진 시기로 구분하고 있다(시적으로는 1960년대 전반부-고도경제성장에 중점을 둔 이케다 내각). 그리고 제3단계는 시기적으로는 1960년대 후반이며, ‘엔터프라이즈사건’(1968년 1월)을 전환점으로 반미와 표리일체화된 민족 감정을 이용해서 국가와 대치한 학생들이 상징적이듯이, 민족과 국가가 분리된 상황으로 인식하고 있다. 마지막 제4단계는 앞으로의 민족주의에 대해서 예언하는 내용인데, 여기에서 오키나와를 ‘인질이 된 일본인(人質にされた日本人)’이라고 말하고 있고, 김희로 사건을 ‘억압받아 격발하는 이민족(抑圧されて激発する異民族)’으로 인식하면서, 두 사항에 대한 일본 정부의 대처 방법에 대해서 ‘일본인을 평화롭게 밖에 구출하지 못하는 국가 권력’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여기에는 전후 평화헌법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와 자위대를 국군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 대한 불만이 반영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미시마 유키오는 이와 같은 인식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일본인상에 대해서 설명한다.

사회적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고대의 동요와 같이 앞으로 도래할 시대를 우의적으로 상징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김희로 사건은 존슨 성명에 앞서 특정 시대를 예언하는 듯한 매우 우의적인 발생 과정을 거쳤다. 그것은 세 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있다. 즉, 「인질이 된 일본인」이라고 하는 주제와 「억압받아 격발한 이민족」이라는 주제, 그리고 「일본인을 평화적으로밖에 구출할 수 없는 국가 권력」이라는 주제가 바로 그것이다. 첫 번째 문제는 오키나와와 니이지마(新島)의 도민, 두 번째 문제는 조선인 문제 그 자체, 세 번째 문제는 현재 국가 권력의 평화헌법과 여론에 의해 손과 발이 묶여 있는 상태를 노골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그리고 여기에는 진정한 정치적 이데올로기가 원하는 대로 변용된 일본 민족의 상반된 두 이미지—외국의 무력에 의해 인질이 되어 억압 받은 평화적 일본 민족이라는 이미지와, 이민족 압박의 역사적 죄책감에 의해 권력 행사가 제약된 일본 민족이라는 이미지—가 양립하면서 전형적으로 표현되어 있는 것이다. 전자의 피해자 이미지는 조선 민족과 동일화되고, 후자의 가해자 이미지는 베트남 전쟁을 수행한 미국 이미지와 오버랩된다.⁸⁾

위의 글이 전후 일본이 내셔널 아이덴티티를 재구축하면서 일본 스스로를 세계 그 자체로 동일화시켜 나가려는 메이지 100주년에 해당하는 1968년에 발표된 것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일본 민족의 상반된 두 이미지’에 대한 지적은 의외로 정확하다. 달리 말하자면, 일본은 재일조선인과의 관계에서는 ‘이민족 압박의 역사의 죄책감’을 꺼안을 수밖에 없는 가해자이지만, 전후 미국과의 관계성 속에서 보면 ‘외국의 무력에 의해 인질이 되어 억압 받은 평화적 일본 민족’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미시마 유키오는 김희로 사건은 다른 아닌 이와 같은 전후 일본인에게 내재되어 있는 이중적인 내면의 구조를 폭로하는 ‘특정 시대를 예언하는 듯한 매우 우의적’인 사건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와 같은 미시마 유키오의 김희로 인식은 동시대의 일본 문학가들과는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예를 들면, 오에 겐자부로(大江健三郎)는 이진우사건과 김희로사건이 전후 일본인들에게 던지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나는 그들의 정신과 행동에 대해서 분석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우리들이 도달해야 할 지점을 제시해 두고 싶다. 그것은 조선인에 대한 것을 말하는 것이겠지라고 남의 일 말하듯이 인식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이진우 소년은 우리들 일본인 자신이며, 김희로 역시 우리들 자신, 현대 일본인 자신임에 틀림없고, 우리들 자신이 강간을 하고 교수형에 처해졌으며, 우리들 자신이 다이어마이트 몽치를 배에 감고 엽총을 난사하고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 최종적으로 내가 도달해야 할 지점이다”⁹⁾라고 설명하고 있듯이, 오에 겐자부로는 이진우와 김희로는 ‘남의 일’이 아니라 바로 우리들 일본인 및 일본 사회가 만들어 낸 사건이라는 의미에서 ‘김희로는 우리들이다’라고 말하고 있다.

물론 이와 같은 일본인과 재일조선인의 동일화에 대해서, 이토 나루히코(伊藤成彦)는 “결국 단적으로 말해서 우리들과 김희로의 관계는 좋은 싫든 상관 없이 ‘국가’를 개입해서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에 있는 것이고, 이와 같은 관계에 있다는 것의 의미를 정말이지 충격적인 형태로 물어 온 것이 본 사건이었다”¹⁰⁾라고 지적하고 있듯이, 재일조선인과 일본인은 일제강점기라고 하는 역사적인 문제 때문에 필연적으로 가해자와 피해자의 이항대립적인 관계가 자동

8) 三島由紀夫(2010)『文化防衛論』ちくま文庫, pp.61-62.

9) 大江健三郎(1968.4)「政治的想像力と殺人者の想像力—われわれにとって金嬉老とはなにか?」『群像』, pp.161-169.

10) 伊藤成彦(1968.5)「秩序の論理と人間の原理—金嬉老事件についての報告—」『展望』, p.99.

적으로 성립되기 때문에, 선불리 ‘김희로는 우리들이다’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다. 물론 오에 겐자부로가 이와 같은 관계성을 인식하지 못했다고는 볼 수 없고, 오히려 오에 겐자부로가 말하고 있는 ‘김희로는 우리들이다’라고 하는 발언은 일본인과 재일조선인의 비대칭적인 관계성을 바로잡기 위한 일본인의 ‘정치적 상상력’을 촉구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오에 겐자부로의 ‘김희로는 우리들이다’ 발언을 통한 ‘정치적 상상력’의 촉구와 비대칭적인 관계성의 회복에 대한 인식을 경유하면서 미시마 유키오의 김희로 인식을 살펴보면, 미시마 유키오는 전후 일본에서 재일조선인 문제는 일본 내부의 이민족 문제가 아니라 ‘국제문제’이며 ‘난민문제’라고 지적하는 부분은 주의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전후 일본에 있어서 진정한 이민족 문제는 있을 수 없고, 재일조선인 문제는 국제문제이며 난민 문제이기는 해도 일본 국민 내부의 문제라고는 말할 수 없다. 이것을 내부의 문제인 것처럼 취급하는 일부 언설에는 확연하게 정치적인 의도가 있고, 선진공업국의 혁명 주체로서의 이민족의 이용 가치를 인정한 사람 이외에는 없다. 그곳에는 그러나 일본의 민족주의와의 모순이 논리적으로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베트남 전쟁과 미국의 흑인 폭동이 이러한 「수단으로서의 민족주의」를 휴머니즘의 가면 아래에서 정당화한 것이다.¹¹⁾

미시마 유키오는 재일조선인 문제를 단순히 일본 국내만의 문제가 아닌 제2차 세계대전이라고 하는 전세계적 상황이 만들어낸 하나의 문제로 파악하고 있고, 따라서 재일조선인은 일본 국내의 문제가 될 수 없고 ‘국제문제’이며 ‘난민문제’라고 강조하고 있는데(물론 이러한 논리 속에서 일본 스스로에게 면죄부를 부여하고 결과적으로 전쟁과 식민 유재로서의 재일조선인에 대한 책임문제는 은폐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논리는 ‘김희로는 우리들이다’라고 주장하는 오에 겐자부로와 정반대의 위치에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주의할 점은 미시마 유키오의 민족주의에 대한 인식은 재일조선인 문제의 국제성 및 김희로 사건의 옳고 그름에 있지 않고, 동 사건에 대해서 코멘트하는 지식인들의 발화 포지션과 그것이 만들어 내는 ‘정치적 의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수단으로서의 민족주의’는 피해자로서의 일본과 가해자로

11) 三島由紀夫(2010) 『文化防衛論』ちくま文庫, p.62.

서의 일본의 이미지를 상황에 따라 자의적으로 구별해서 이용한다는 점에서 문제적이며(위의 글에서 이것을 ‘휴머니즘의 가면’이라고 말하고 있듯이), 그런 점에서 민족주의 그 자체에 모순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이와 같은 두 이미지가 유착된 ‘수단으로서의 민족주의’는 현재 피해자 이미지를 확산하면서 자립국가를 추구하는 역사수정주의자들(보수세력, 개헌파)과 자국의 전쟁책임을 호소하며 가해자성을 강조하는 호헌파로 분열되어 있다는 점에서(물론 『문화방위론』에서 미시마 유키오는 호헌파의 강세를 예상하고 있었지만), 미시마 유키오의 전후 민족주의에 대한 인식은 여전히 현재적 유효성을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리고 가해자로서의 일본인과 피해자로서의 일본인 양쪽 모두 ‘수단으로서의 민족주의’에 의존해 있고, 이를 기반으로 스스로의 내셔널 아이덴티티를 구축하려 한다는 지적은 단순히 전후 일본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다음에서 기술하는 바와 같이 1980년대를 전후해서 전개된 재일조선인의 ‘제3의 길’ 논쟁과도 궤를 같이 하고 있다.

3. 이진우사건과 재일조선인의 자기 표상

그렇다면, 다음으로 미시마 유키오의 ‘수단으로서의 민족주의’를 경유하면서 김석범의 『사제없는 제사』를 살펴보도록 하자. 앞서 소개한 바와 같이, 김석범의 『사제없는 제사』는 일본 문단으로부터 그다지 높은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는데, 하지만 재일조선인의 당사자성에 주목하면 조금 다른 해석이 가능해진다. 예를 들면, 동 사건은 당시 미디어를 통해서 ‘동기 없는 사건’으로 보도되었는데, 이것은 이진우의 다음과 같은 1차 범행과 2차 범행에 대한 진술을 토대로 하고 있다.

나의 머릿속에 항상 남아 있는 문제는 체험이 「꿈」과 같이 느껴진다는 것이었다. …나는 그와 같은 사건을 일으켰으면서도 그것에 대해서 내가 직접적으로 관여했다고는 느껴지지 않았다. …사건을 일으키기 직전까지, 아마 나는 보통 사람들과 같은 마음가짐이었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자전거를 탄 채 피해자와 함께 뒹굴어 떨어지는 그 순간, 나는 이렇게 생각했다. 이것은 현실 세계

인가, 혹시 이것은 꿈이 아닐까 라고. ...이러한 현상은 두 번째 사건 때에도 일어났다.¹²⁾

위의 진술에서 알 수 있듯이, 이진우 본인은 범행에 대해서 사건 직전까지는 극히 일반인들과 다를 바 없는 평정심을 유지하고 있었고, 범행을 일으킨 그 순간조차 마치 ‘꿈’과 같았다고 말하고 있는데, 김석범의 작품 속에도 ‘꿈’은 작품 해석의 중요한 키워드로 등장하고 있다. 예를 들면, 주인공 김봉남(金朋南)은 소설 첫 부분에서 가출한지 3개월 만에 돌아온 동경의 집에 대해서 “마을에 대한 과거 기억의 재현인지, 꿈과 현실을 가르는 한 장의 베일 또는 투명한 유리를 박아놓은 듯한 풍경”이라고 말하고 있고, 또한 “꿈속이 아닌 꿈 바깥에서 현실 감각을 느낄 수 있는 무언가를 하기 위해 알지 못하는 마을에 찾아온 듯한 느낌”이라고 말한다. 작품 속에서 주인공 김봉남은 현실 세계에서 리얼리티를 느끼지 못하는 주인공으로 설정되어 있는데, 주의할 점은 사고의 방향성이 항상 ‘꿈속’에서 ‘꿈 바깥’을 지향하고 있다는 것이다.

조선인이라고 하는 인간이 살고 있는 쓰레기장은 요새 속 부락. 어릴 적 꿈나라 숲 속 부락, 숲으로 덮인 요새의 부락. (중략)언젠가 요새의 밖으로 나가자. 숲 속에서 벌벌 떨지 말고 밖으로, 요새 밖으로 탈출하자. 숲 속 가장 높은 나무 꼭대기에서 짐승이 날개를 펴고 새가 되어 요새를 넘어 밖으로 나갔다. 날아가면 그곳에는 항상 마을 외곽의 밭에 먹잇감이 있었고, 그것은 다리가 네 개 달린 인간, 아니 벌거숭이 어린아이다. 새가 그것을 낚아채기 직전에 반드시 새를 노리는 녀석이 있고, 새가 된 짐승인 나는 마을 상공에서 맞아 떨어진다. 격추당해 1억의 빨간 주둥이를 벌린 지상으로 떨어진다. 새는 또 다시 숲 상공에서 비상한다. 비상하면 또 다시 격추당해 떨어진다. 새는 난다. 나는 요새를 초월하는 조선인 새이다.¹³⁾

위의 인용문은 김봉남의 꿈속에 항상 등장하는 주인공이 살고 있는 마을의 이미지인데, 조선인 부락은 ‘요새’에 포위되어 있고, 안쪽은 ‘조선인’, 그리고 바깥쪽은 ‘일본인’으로 구분되어 있다. 요새의 안쪽에 있는 주인공 ‘나’는 항상 벌벌 떨면서 자기 동일성과 아이덴티티 구축에 실패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나’는

12) 李珍宇·朴傳南(1962.10) 「獄窓に祖国の瞳を見つめて」 『婦人口論』, p.174.

13) 金石範(2005) 「祭司なき祭り」 『金石範作品集Ⅱ』 平凡社, p.175.

자신을 공포와 두려움에 떨게 하는 상대와의 관계성을 절단하기 위해, 반복적으로 요새의 월경을 시도한다. 그러나 요새를 날아올라 경계를 넘으려는 순간, 외부의 ‘일본인’에게 격추당해 추락하게 되는 실패의 순환 구조가 끊임없이 반복된다.

주의할 점은 소설의 방향성은 이와 같은 꿈의 이분법을 원용하면서도 차별과 피차별이라는 도식을 보장하는 쪽으로는 작용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고, 이것은 재일조선인의 범죄와 책임문제를 말하는 이진우의 다음과 같은 진술을 연상시킨다.

예를 들면 어느 일본인은 나의 문제를 재일조선인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접근을 해서, 그 책임은 자신들에게도 있다고 하면서 나를 위해 힘써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에도 당신께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나의 범행에는 두 가지 측면에서의 시각이 있는데, 하나는 환경은 어떻게 해서 나에게 그러한 범죄를 저지르게 했을까 라는 점과, 또 하나는 나는 환경에 대해서 어떠한 노력을 했는가 라는 점입니다. 이 때, 후자의 경우에서 책임 문제가 나오는 것입니다.¹⁴⁾

이진우의 경우, 본인의 범행에 대해서 외적 환경론의 입장에서 해석하지 않고, 본인은 환경에 대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 라는 측면에서 접근해야 하며, 자신의 범행과 존재가 ‘재일조선인’이라고 하는 말에 회수되는 것에 극단적으로 경계를 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 작품 속에서 김봉남은 편의상 사용해 온 많은 일본이름들이 자신의 이름으로 인식되지 않고, 뿐만 아니라 자신은 일본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자신의 내부에는 “조선”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듯이, 본명과 통명 양쪽 모두 확신을 갖지 못하고 있다. 또한, 국적에 대해서도 리얼리티를 느끼지 못하는 주체로 그려지고 있다는 점에서, 그것은 다름 아닌 ‘꿈속’을 살고 있는 상태라고 말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 작품 속의 김봉남의 아이덴티티는 자신의 범행에 대해서 마치 ‘꿈’과 같았다고 진술하는 이진우의 아이덴티티와 오버랩되는데, 주의할 점은 김석범은 왜 작품 속에서 차별과 피차별이라는 도식을 원용하면서 고발자로서의 재일조선인을 그리고 있지

14) 李珍宇(1979) 「一二月二八日 李珍宇劫池田淳子へ」 『李珍宇全書簡集』 新人物往来社, pp.348-349. 김희로는 본인의 범행에 대해서 “나는 사람을 죽일 권리도 자격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죽였다. 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었는가. 민족차별문제라고 하는 것은 좋은 것인가, 나쁜 것인가. 왜 그러한 문제가 발생하는가. 긴 역사 속에서 보면, 우리들은 일본인으로부터 차별을 받지 않으면 안 될 나쁜 짓을 해 왔는가”라고 범행의 동기를 일본 사회의 차별성이라고 하는 외적 환경론에서 설명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진우사건과는 결정적으로 차이가 있다.

않는 것일까. 사실, 이와 같은 작품 속의 이중성은 동시대에 전개되었던 ‘제3의 길’ 논쟁에서 보이는 재일조선인 2세, 3세의 전형적인 감각이기도 했다.

1980년 전후에 전개된 ‘제3의 길’ 논쟁이란 재일조선인 2세, 3세의 비율이 80%를 차지하기 시작한 당시, 재일조선인의 삶의 방식에 대해서 일본인의 두 논문이 단초가 되어 일어났다. 먼저, 사카나카 히데노리(坂中英徳)는 재일조선인의 삶의 방식을 1)귀국지향, 2)귀화지향, 3)한국과 조선 국적인 채 일본에 정주지향으로 분류하고, 국적을 유지한 채 정주하는 것이 일본의 입장에서는 가장 마이너스라고 하면서, 재일조선인이 귀화하기 쉬운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반면, 이에 대해서 이이누마 지로(飯沼二郎)는 귀국지향은 조국의 정세가 불안정하기 때문에 기대할 수 없고, 귀화지향은 동화주의와 이어지기 때문에 안 되며, 사카나카 히데노리가 부정적으로 평가했던 국적을 유지한 채 일본에 정주하는 것이 바르게 평가되어야 할 ‘제3의 길’이라고 주장했다. 이러한 두 사람의 논쟁에 대해서 박일(朴一)이 지적하고 있듯이, 두 사람 모두 기본적으로는 ‘귀국사상’을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신적으로 조국과 일체화된 재일조선인 1세의 비판을 받게 된다.¹⁵⁾

예를 들면, 재일조선인 시인 김시중은 동 논쟁에 대해서 “조국의 모습이라든지 전도에 참여하는 것을 가지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민족성을 보유할 수 있는가”¹⁶⁾라고 비판하고 있고, 작가 이회성 역시 “조선인 내부에서 스스로의 존립의 기반을 붕괴할지도 모르는 『제3의 길』이 공공연히 등장하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다”¹⁷⁾라고 부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반면, 1세대에 해당하는 김석범은 재일조선인의 세대교체에 따른 사고의 전환은 필수불가결하다고 하면서, 1세의 사고를 2세, 3세에게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한다.

「재일」의 위치는 자립적이지 않으면 안 된다. (중략)가령 차별·피차별의 도식 속에서 사고할 경우, 고발하는 쪽, 즉 차별을 받고 있는 쪽의 의식의 상태는 어떠한가. 피차별 쪽은 일반인들이 느끼지 못할 것 같은 괴로움을 동반한 긴장감과 더불어, 상대를 고발할 수 있다는 자신의 위치에 쉽게 기대기 때문에, 결국 공교롭게도 피차별이라는 위치 때문에 빠지기 쉬운 함정을 스스로

15) 朴一(1992.10) 「『在日論』論争の成果と課題—在日朝鮮人二・三世の生き方をめぐって」 『ほるもん文化』, p.94.

16) 金時鐘(1980.4) 「座談会・第三の道をめぐって」 『朝鮮人』, p.30.

17) 李愷成(1981) 『青春と祖国』 筑摩書房, p.50.

가지고 있는 셈이다. (중략)즉, 가해·피해의 도식이 “동정”으로 밸런스를 유지하고 있는 듯한 상태에서는 양쪽 모두 구원을 받을 방법이 없다. (중략)타개해야 할 작업은 차별을 받고 있는 자로부터 시작된다.¹⁸⁾

재일조선인은 ‘자립적’이어야 한다고 말하는 김석범은 차별과 피차별의 도식 속에서 사고하는 한, 재일조선인의 자기 구축은 실패한다고 지적한다. 왜냐하면, 차별과 피차별의 도식이라고 하는 이항대립적 관계에서는 차별하는 쪽은 항상 선행되어 있고, 차별을 받는 쪽은 선행하는 상대가 존재한다는 전제 하에서 고발할 수 있는 위치를 보장받기 때문이다. 달리 말하자면, 차별자로서의 일본을 상정하지 않으면 재일조선인 자신의 아이덴티티를 구축하는 것조차 불가능하기 때문에, 재일조선인은 항상 선행하는 가해자로서의 일본인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내포하게 된다.

이상과 같이, 동시대의 재일조선인의 아이덴티티 구축을 둘러싼 ‘제3의 길’ 논쟁을 경유하면서 작품을 살펴보면, 꿈속에서 첫 번째 범행을 증명하기 위해서 두 번째 범행을 시도하는 과정 속에서, 자신의 손에 목이 졸려 죽은 사람이 여동생 ‘준코(純子)’로 설정되어 있는 장면은 상징적이다. 즉, 작품 속에서 재일조선인의 아이덴티티를 구축하지 못한 김봉남이 차별과 피차별 속에서 일본인과의 관계를 재구성하려고 한 시도는 결국 자신의 여동생을 죽이는 이야기로 끝이 난다. 달리 말하자면, 재일조선인의 아이덴티티가 가해자로서의 일본인을 경유하면서밖에 구축되지 않는 비대칭적인 관계의 결말을 재일조선인 스스로의 패배로 그리고 있고, 이것은 다른 아닌 동시대의 ‘제3의 길’ 논쟁에서 김석범이 강조한 재일조선인은 ‘자립적’이어야 한다는 논리와 일치한다.

김석범은 재일조선인 2세, 3세의 비율이 80%를 차지하기 시작한 1980년 전후에, 23년 전에 일어난 이진우사건을 소환해서 후대 세대의 아이덴티티 구축을 위해서는 더 이상 일본과의 관계를 비대칭적인 관계성 속에서 사유하지 말아야 하고, 이른바 무관계라고 하는 관계성 속에서 스스로의 아이덴티티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그리고 이것은 다른 아닌 미시마 유키오가 민족주의 4단계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수단으로서의 민족주의’에 입각하지 않는 자기 구축이며, 비대칭적인 관계성 속에서의 자기 구축의 모순을 작품 속에서 그리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18) 金石範(1981) 『「在日」の思想』筑摩書房, p.89.

4. 외교문서와 공모하는 한일 미디어

마지막으로, 미시마 유키오의 ‘수단으로서의 민족주의’와 김석범의 무관계라고 하는 관계성에 주의하면서, 김희로 사건에 대한 한일 미디어의 보도방식과 한국정부의 재일조선인 인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자. 먼저, 사건 발생 직후의 일본 미디어에 주목해보면, 식민 유재로 남아 있는 재일조선인 문제에 호의적인 기사를 써 온 아사히신문 계열의 『주간 아사히(週刊朝日)』 조차도 처음에는 김희로의 단순 범행으로 보도하고 있다.

김은 마스크, 특히 텔레비전을 이용했다. 처음부터 계획한 것처럼 생각된다. ‘후지미야’에 도착한 김은 21일 오전 2시를 넘긴 후, 시즈오카신문사와 NHK에 전화를 해서 “나는 살인범 김이다”라고 소재를 밝히고, ‘전화 인터뷰’에 응했다. 그 후, 여기저기의 방송국, 라디오국, 신문사가 ‘후지미야’에 전화를 걸었고, 그때마다 김은 당당하게 끊임없이 말을 토해냈다. (중략)요구가 받아들여질 때마다, 김의 태도는 점점 에스컬레이트되었다. 텔레비전을 켜둔 채, 뉴스를 뚫어저러 쳐다보고 있었고, 김에 대한 방송이 나올 때마다, 김은 기뻐하기도 분해하기도 했다. 처음에는 살인 사건에 대한 변명과 경찰의 잘못을 비난하는 의견을 반복했던 김은 이윽고 일본민족과 조선민족의 문제를 논하기 시작했다. 밖에 있는 방송국 기자를 안에 들이고, 한참동안 민족문제를 털어놓았다. 그것을 녹화해서 틀어달라는 것이었다. 본래, 김은 스타 의식이 강한 남자였다.¹⁹⁾

위의 기사에서 김희로는 “마스크, 특히 텔레비전을 이용했다”, “김은 스타 의식이 강한 남자였다”라고 보도하고 있고, 또한 “처음에는 살인 사건에 대한 변명과 경찰의 잘못을 비난하는 의견을 반복했던 김은 이윽고 일본민족과 조선민족의 문제를 논하기 시작했다”라고 보도하고 있듯이, 동 기사는 미디어를 자유자재로 활용하는 지능범 김희로는 ‘수단으로서의 민족주의’를 자의적으로 이용하면서 개인적인 단순 범죄를 공적 범죄로 둔갑시키고 있다고 비판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은 평가는 단순히 잡지 기사에 그치지 않고, 재판과정에서도 “피고인은 도주 시, 자신이 조선인이라는 사실과 본건 살인과를 연관시키고,

19) 伊藤, 川口記者(1968.3.8.) 「恐怖の88時間 ライフル魔と人質たち」 『週刊朝日』, p.22.

또한 시미즈경찰서 폭력범 담당 형사 고이즈미 이사무에게 조선인을 매도당했다며 동 사건을 세상에 고발하기로 결심하고, 이를 위해 스마타코 온천 마을에서 인질을 잡고 농성하는 것을 생각해냈다”²⁰⁾라고 김희로의 단순 범죄를 강조하고 있듯이, 검찰 측 역시 김희로는 ‘수단으로서의 민족주의’를 자신의 범죄를 은폐하려는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주목할 점은 한국의 미디어 역시, “「전과 6범」인 김은 그의 행위가 어떤 형벌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고 그로부터 자기합리화의 길을 찾고 있다”²¹⁾, “일이 벌어지고 난 뒤, 시간의 흐름과 함께 全日本이 떠들썩해지자 金嬉老의 마음 속엔 潜在的이었던 民族감정이 醗酵하기 시작한 것 같고, 그로부터 비롯된 자기범행의 合理化내지는 妥当性, 나아가서는 小英雄주의의 포로가 된 느낌마저 주고 있는 형편이다”²²⁾라고 보도하고 있듯이, 사적 감정에서 시작된 사건을 시간의 경과에 따라 이른바 ‘수단으로서의 민족주의’를 적극적으로 이용하면서 공적 사건으로 ‘자기합리화’했다고 분석하고 있다.

하지만 주의할 점은 사건이 종료된 직후, 한국의 미디어는 “그러나 그가 늘 在日韓国人을 蔑視하고 侮辱하는 日本官憲 또는 日本市民들에게 向해 사무친 怨恨을 품고 있었고, 殺人의 動機가 어떻든 結果적으로 그런 潛在意識이 爆発加勢하여 이번과 같은 끔찍한 犯行을 저지른 것”²³⁾이라고 방점의 위치를 이동시키면서 ‘수단으로서의 민족주의’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기 시작한다.

또한, 이와 같은 동시대의 한일 미디어뿐만 아니라, 한국정부 역시 ‘수단으로서의 민족주의’를 이용하면서 김희로사건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에는 주의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동 사건에 대한 한국정부의 최초 입장은 “日 政府는 同 事件이 明白한 殺人事件이므로 国内法 節次에 따라 裁判에 회부하고 있으며, 우리 政府로서는 同 事件이 일단 日本 国内 問題이고 正式裁判에 係留中이므로 公式적으로 関여하지 않고 있”²⁴⁾다고 말하고 있듯이, 김희로 사건을 일본 국내의 형사 사건으로 인식하고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었다(사건이 발생한 1968년의 외교문서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에서도 한국정부의 적극적인

20) (1970) 「檢察官의冒頭陳述」 『金嬉老の法廷陳述』 三一書房, p.232.

21) 기사(1968.2.24) 「差別이 빚은 「恐怖」 김희로 사건」 『조선일보』

22) 기사(1968.2.25) 「日本속의 韓国人」 『조선일보』

23) 기사(1968.2.27.) 「<사실>金嬉老事件이 告白한 今日以後의 問題」 『조선일보』

24) 외무부문서(2000) 「在日僑胞 金嬉老 事件 (答弁資料)」 『제일교민 김희로사건, 1970』 외교통상부, p.1689.

개입은 찾아볼 수 없다).

또한, 1970년 3월의 외무부 장관이 주일대사에게 발신한 외교문서를 보면, “현재 시즈오카 지법에서 재판중인 “김희로”를 구출하기 위하여 서명 운동을 추진하여온 “김희로 구출 서명 운동 추진 위원회”의 위원장인 권애라여사(전 국회의원 고 김시현의 처)는 일본에 있는 “김희로 공판 대책 위원회”로부터 3.25에 있을 김희로 사건 공판에 참석하고, 그 기회에 한일 민족 문제에 관한 토의를 위하여 도일하여 달라는 초청장을 받았다 하고, 선처를 요청하여 왔음”²⁵⁾이라고 한국의 김희로구출서명운동추진위원회의 도일의 필요성을 일본 주일대사에게 확인하고 있다. 이에 대해 주일대사는 일본의 김희로공판대책위원회 및 변호인단이 공산당과 좌익계열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금번 권애라 등의 도일 필요성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²⁶⁾이라고 회신하지만, 외무부는 재차 “김희로가 어머니라 칭하고 만나기를 간청하고 있는 권애라”²⁷⁾의 도일에 대해서 의견을 구한다. 그러나 주일대사는 “본건에 관한 당관 견해는 연호전문 3항과 같거나와 일측 공판대책 위원회와 관련없이 도일하는 경우라할지라도 부작용을 전적으로 배제할 수 없을 것이므로 현 단계로서는 대호 3인의 내일도 적합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됨”²⁸⁾이라고 보고하고 있듯이, 한국정부는 김희로 사건에 대해서 일본과의 정치적인 문제로 부각되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달리 생각하면, 한국의 ‘김희로구출서명운동추진위원회’의 일본 방문을 검열 및 차단하고 있다고도 해석할 수 있다(권애라는 추후 김희로를 선도/위로한다는 개인 자격으로 도일).

또한, 한국정부는 이와 같은 중립적인 포지션을 취하면서, 민단 출신 변호사 김관암과 권일을 통해서 재판중인 김희로의 국적을 ‘일본’에서 ‘한국’으로 취득하게 한다. 한국정부는 1965년 일본과의 국교정상화 이후에 한일법적지위협정을 체결하고, 재일조선인의 외국인등록증명서의 국적을 ‘조선’에서 ‘한국’으로 변경하는 이른바 국적변경운동을 전개하기 시작한다. 동 협정 영주권 신청의

25) 외무부문서(2000) 「수신 : 주일대사, 발신 : 장관, 번호 : WJA-03153」 『재일교민 김희로사건, 1970』 외교통상부, p.1664.

26) 외무부문서(2000) 「수신 : 장관, 발신 : 주일대사, 1970년 3월 17일, 번호 : JAW-03208」 『재일교민 김희로사건, 1970』 외교통상부

27) 외무부문서(2000) 「수신 : 주일대사, 발신 : 장관, 1970년 3월 20일, 번호 : WJA-03204」 『재일교민 김희로사건, 1970』 외교통상부

28) 외무부문서(2000) 「수신 : 장관, 발신 : 주일대사, 1970년 4월 3일, 번호 : JAW-04084」 『재일교민 김희로사건, 1970』 외교통상부

최종 마감일이 1971년 1월 16일이었는데, 당시 약 60만 명의 재일조선인 중에 ‘한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은 절반도 미치지 못했다. 따라서 한국 정부는 민단 출신 변호사를 통해서 김희로의 국적을 ‘한국’으로 변경시키고, 이를 통해 반공 의식과 북한에 대한 한국의 우월성을 강조하는 데 적극적으로 활용하게 된다.

그 뿐만 아니라, 한국정부와 일본의 주일대사는 김희로의 옥중 결혼(상대는 서울 남산여관에서 근무하는 김문자)을 위해, “김피고자신 및 김피고 모친이 가장 호감을 갖게 되어 일단 사진 중매로서 결혼을 결정케 되었다고 말하고 혼인문제에 관하여는 현재 총련계에서 대판에 있는 모여인을 짓꾸지게 주선을 하고 있는 관계로 가능하면 상기 김문자와의 결혼을 조속 결정짓고 싶다고 하였음. 한편 김피고는 김여인이 결혼 목적으로 도일함에 있어 필요한 수속을 민단 시즈오카현 본부단장 조호연 씨에게도 부탁하였으나 대한민국정부가 각별한 편의를 제공해 주기 바란다고 말하였음”²⁹⁾라고 옥중 결혼 상대자의 도일을 컨트롤하고 있듯이, 한국정부는 표면적으로 중립적인 자세를 취하면서도 김희로를 포함한 재일조선인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오히려 철저하게 ‘수단으로서의 민족주의’에 입각해서 반공 및 한국의 우월성을 대외적으로 선전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했다고 볼 수 있다.

5. 나오며

본고에서는 전후 일본에서 대표적으로 회자되고 있고 재일조선인에 의한 범죄, 즉 1958년의 이진우사건과 1968년의 김희로사건을 중심으로, 재일조선인 작가의 자기 표상과 일본인 작가의 타자 표상에 대해서 고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다.

그 결과, 미시마 유키오의 『문화방위론』은 지금까지 논리의 비약성 때문에 비판적으로 평가되어 왔지만, 김희로 사건에 대해서 언급하는 가해자로서의 일본인과 피해자로서의 일본인 모두 사실은 ‘수단으로서의 민족주의’를 필요에 따라 자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날카롭게 지적하고 있다. 특히, 일본은 재일조선인과의 관계에서는 가해자인 반면, 미국과의 관계에서는 피해자이기도 하

29) 외교부문서(2000) 「제목 : 진정에 대한 조사보고」 「수신 : 장관, 발신 : 영사국장, 1971년 3월 18일, 번호 : 725-206」 『재일국민 김희로사건, 1971』 외교통상부

다는 점에서, 김희로 사건은 다른 아닌 이와 같은 전후 일본인에게 내재되어 있는 이중적인 내면의 구조, 즉 전후 민족주의의 4단계를 우의적인 형태로 전경화시킨 사건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미시마 유키오의 ‘수단으로서의 민족주의’를 경유하면서 김석범의 『사제없는 제사』에 주목해 보면, 김석범은 작품 속에서 재일조선인의 민족적 아이덴티티가 가해자로서의 일본인을 경유하면서밖에 구축되지 못하는 비대칭적인 관계의 결말을 재일조선인 스스로의 패배로 그리고 있는데, 이것은 다른 아닌 동시대의 ‘제3의 길’ 논쟁에서 가해자와 피해자, 차별과 피차별이라는 이항대립적인 도식에 의존하지 않는 무관계라는 관계성 속에서의 자립적인 자기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한 김석범의 인식과 연동되어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 동시대의 한일 미디어는 ‘수단으로서의 민족주의’를 기반으로 김희로의 범행을 편의에 따라 긍정적 또는 비판적으로 보도하고 있고, 한국 정부 역시 표면적으로 중립적인 자세를 취하면서도 김희로를 포함한 재일조선인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오히려 철저하게 ‘수단으로서의 민족주의’에 입각해서 반공 및 한국의 우월성을 대외적으로 선전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참고문헌】

金石範(1981) 『「在日」の思想』 筑摩書房, p.89.
 _____(2005) 「祭司なき祭り」 『金石範作品集Ⅱ』 平凡社
 金時鐘(1980.4) 「座談会・第三の道をめぐって」 『朝鮮人』, p.30.
 金嬉老(1999) 『われ生きたり』 新潮社, p.126.
 朴一(1992.10) 「『在日論』 論争の成果と課題—在日朝鮮人二・三世の生き方をめぐって」 『ほるもん文化』, p.94.
 李珍宇·朴儔南(1962.10) 「獄窓に祖国の瞳々を見つめて」 『婦人口論』, p.174.
 李恢成(1981) 『青春と祖国』 筑摩書房, p.50.
 林相珉(2011) 「金嬉老事件と〈反共〉—映画「金の戦争」論」 『日本文化学報』 第51輯, p.11-14.
 임상민(2017) 「김희로 사건과 김달수-정기간행물 『김희로공판대책위원회뉴스』를 중심으로-」 『일본어문학』 제72집, pp.19-22.
 _____(2014) 「김희로 사건과 내파하는 한일 미디어-츠츠이 야스타카(筒井康隆)의 「신킨타로(晋金太郎)」를 중심으로-」 『인간과 문화 연구』 제25집, pp.15-18.
 伊藤成彦(1968.5) 「秩序の論理と人間の原理—金嬉老事件についての報告—」 『展望』, p.99.
 伊藤, 川口記者(1968.3.8.) 「恐怖の88時間 ライフル魔と人質たち」 『週刊朝日』, p.22.

- 入江隆則(1981.2) 「文芸時評」 『すばる』, p.327.
大江健三郎(1968.4) 「政治的想像力と殺人者の想像力—われわれにとって金嬉老とはなにか?」 『群像』, pp.161-169.
小野悌次郎(1998) 『存在の原基 金石範文学』 新幹社, p.99.
坂中英徳(1977) 「今後の出入国管理行政のあり方」 『外国人登録』 223?, p.25.
立石伯(1981.9) 「事実と虚構」 『群像』, p.287.
三島由紀夫(2010) 『文化防衛論』 ちくま文庫
村上一郎(1972.12) 「「文化防衛論」をめぐって」 『国文学 解釈と鑑賞』, pp.99-102.
기사(1968.2.24) 「差別이 빛은 「恐怖」 김희로 사건」 『조선일보』
기사(1968.2.25) 「日本속의 韓国人」 『조선일보』
기사(1968.2.27.) 「<사설>金嬉老事件이 告白한 今日以後의 問題」 『조선일보』
외교부문서(2000) 「제목 : 진정에 대한 조사보고」 「수신 : 장관, 발신 : 영사국장, 1971년 3월 18일, 번호 : 725-206」 『재일국민 김희로사건, 1971』 외교통상부
외무부문서(2000) 「수신 : 장관, 발신 : 주일대사, 1970년 3월 17일, 번호 : JAW-03208」 『재일국민 김희로사건, 1970』 외교통상부

논문 투고 일자 : 2018. 03. 31. 논문 심사 일자 : 2018. 04. 30. 게재 확정 일자 : 2018. 05. 09.
--

< 要 旨 >

日本文学と在日朝鮮人の犯罪学研究
 -三島由紀夫『文化防衛論』を中心に-

林相珉

本稿では戦後日本において代表的に膾炙されている在日朝鮮人による犯罪、すなわち1958年の李珍宇事件と1968年の金嬉老事件を中心に、在日朝鮮人の作家による自己表象と日本人の作家による他者表象について考察することを目的とした。

その結果、三島由紀夫の『文化防衛論』は今まで論理の飛躍性のため、批判的に評価されてきた作品である。しかし、金嬉老事件に対して加害者の意識を持っている日本人と被害者の意識を持っている日本人が両方とも「手段としての民族主義」を都合よく流用しているという構造的な問題を鋭く指摘している。

また、金石範は作品の中で在日朝鮮人のアイデンティティが加害者としての日本人を経由しなから構築される非対称的な関係の結末を在日自らの敗北として描いているが、これは同時代に展開されていた「第三の道」論争において、金石範が強調していた無関係という関係の中で自立的な主体構築という考えと一致している。

最後に、このような「手段としての民族主義」という指摘に注目すれば、金嬉老に対する同時代の日韓メディアの報道や韓国政府の在日朝鮮人の認識は彼らの特殊性を考慮することより、徹底的に「手段としての民族主義」という構造に依存していたことが分かる。

Japanese Literature and Criminology of Korean Residents in Japan
 -Focusing on Mishima Yukio's 『A Defense of Culture』 -

Lim, Sang-Min

This study aims to examine self-representation of Korean writers in Japan and the others-representation of Japanese writers by focusing on the most-cited crimes committed by Korean residents in the post-war Japan, including the case of Lee Jin-woo in 1958 and the case of Kim Hee-ro in 1968.

As a result, in his work, Kim Seok-beom has come to the conclusion of the asymmetrical relationship, which is just built when the identity of Korean residents in Japan passes through Japanese as perpetrators, as the defeat of the Koreans themselves in Japan. This is consistent with the need for self-reliant self-construction in the relationship of irrelevance, emphasized by Kim Seok-beom in the dispute of the contemporary 'third way'.

In addition, Mishima Yukio's 『A Defense of Culture』 has been criticized so far for its jump in the logic, but it sharply points out that the Japanese as both victims and as perpetrators, who refer to the Kim Hee-ro incident, misuse 'nationalism as a means' as needed. In this sense, it can be seen that contemporary Korean-Japanese media reports and the Korean government's recognition of Kim Hee-ro also relied heavily on 'nationalism as a means' rather than considering the specificity of Korean residents in Japan.